

# 조선의 노블리스 오브리제(noblesse oblige)의 표본, 권율

권율 장군은 1537년(중종 32년) 영의정 권철의 다섯째 아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재상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 없이 자랐다. 이진당 김덕수에게 학문을 배웠으나 그렇다고 학문만을 일삼지 않았다. 20세 때는 금강산에 들어가 심신을 단련하고 25세 때 안동에 가서 시조묘를 참배하였으며 32세 때는 국재공(권보) 묘소를 참배하고 33세 때는 충주에 있는 문충공(권근) 묘소를 참배했다. 39세 때는 중봉 조헌을 만나 시국을 토론하였고 41세 때는 영남지방을 돌아다니며 지형과 지리를 파악했다. 44세 때 다시 동해안을 돌면서 금강산에 들어가 심신을 수련

했다. 명문가의 집안에 태어나 당시의 관례대로 과거를 봐서 조정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전국을 방방곡곡을 순시하듯 돌아다녔다. 마흔이 넘도록 과거 볼 생각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권율을 보고 친구들이 차라리 음직(陰職)이라도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으나 국구 사양했다. 음직이라는 게 선조들의 공으로 그 자제들에게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주는 벼슬자리였다. 권율은 쉽게 벼슬을 얻을 수도 있었으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강태공은 80세에 영달했는데 나는 강태공보다 나이가 반도 되지 않았으니 무엇이 급할 것

이 있겠는가?” 하고 태연자약했다. 그러다 정정당당하게 과거를 봐서 명경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광주목사에 임명되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부임했다. 국가가 위급하니 이때야 말로 죽을 때라고 급히 서둘렀다. 왜적을 섬멸하는 것만이 떳떳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치대첩, 독산성 전투, 행주대첩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상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독전(獨戰)하였다. 명문가의 자제로서 부와 권력의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권율 장군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

꺼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이런 권율 장군의 정신이 있었기에 이치대첩과 행주대첩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리라.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정신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 극복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층과 기득권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 입은 아내네들이 자진하여 돌을 날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권율 장군의 투철한 노블리스 오브리제 정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편집국장 권형완

## 달인 윤편과 권도(權道)

제나라 환공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침 마당에서 묵수 윤편이 수레를 쥐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상을 쳐다보며 환공에게 물었다.

**윤편** : 전하께서 읽으시는 건 무슨 책입니까?  
**환공** : 성인의 말씀이다.  
**윤편** : 성인이 살아 계십니까?  
**환공** : 벌써 돌아가셨네.  
**윤편** : 그럼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 성인의 찌꺼기군요.  
**환공** :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 만드는 묵수 따위가 어찌 시비를 건단 말이나. 이치에 합당한 설명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 : 저는 제 일의 경험으로 보건대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험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딱딱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고 딱 맞게 깎는 일은 손짐작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만 제가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도 없고 제 자식 역시 제게서 전수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0이 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도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이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제환공이 윤편을 죽였는지 살렸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 장자 천도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자의 수법이 는 이렇다. 최고의 기술은 손끝에서 나온다.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도 그 경지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오직 몸으로 익혀야만 도달할 수 있다. 손끝으로 익힌 기술은 한두 달 따라한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다. 한 우물을 수십 년 파야 한다. 그래야 손끝으로 딱 맞게 깎을 수 있다.

윤편은 달인 엔지니어이다. 엔지니어이면서 환공이 읽고 있는 고전이 성인의 찌꺼기라고 정곡을 찔렀다. 사실 모든 고전은 생각의 시체다. 그런 시체가 묻혀 있는 책(text)은 생각의 무덤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죽은 생각의 무덤에서 사상과 철학은 부활한다. 왜 그럴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전이 쓰여진 그 때나 고전이 죽은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딱 맞게 삶의 수레바퀴를 깎고 있을까. 험렁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게.

삶의 수레바퀴는 무겁다. 저울은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딱 그만큼 가리킨다. 권(權)은 저울이다. 그렇다면 권도(權道)는 더도 덜도 없이 딱 그만큼이 아닐까? 성인의 책이 찌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딱 그만큼을 권도로 읽을 필요도 있으리라.

편집국장 권형완

##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인공지능(AD)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두뇌가 과연 인간을 넘어설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성을 지닐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인류와 기계의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넘어선다는 입장과 넘어서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은 곧 온다고 주장한다. 이 특이점을 염려하여 일론 머스크와 스티븐 호킹은 악마의 기술이라고까지 부르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극도로 염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실리콘밸리의 베테랑 기업가 출신,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KAIST 학술회관에서 ‘인공지능 다시 생각하기(AI: Think Again)’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일부 미래학자들의 예언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로봇들은 독립적인 목표 및 욕망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는 있어도 사람보다 똑똑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간에 대한 우려, 의도치 않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연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기계적인 의미에서 지능이 있

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없고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라면 기계의 마음은 있을까 없을까? 장자 천지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자공이 남쪽 초나라에 여행하고 진(晉)나라로 돌아오려고 한수(漢水) 남쪽을 지나다가 한 노인이 마침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굴을 뚫고 우물에 들어가 향아리를 안아 내다가는 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애를 써서 수고가 많은데 그 효과는 아주 적었다.

자공이 말했다.

여기에 기계가 있으면 하루에 백 이랑도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효과가 큼니다. 딱게선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밭일을 하던 노인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자 말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자공이 말하기를 나무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만들고 뒤쪽은 무겁게 앞쪽은 가볍게 합니다. 그러면 흐르듯이 물을 때내는데 팔팔 넘치도록 빠릅니다. 그 기계 이름을 두레박이라 하죠. 했다. 밭일을 하던 노인은 불끈 낫빛을 붉혔다가 곧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내 스승에게서 들었소만 기계를 갖는다면 기계의 일이 반드시 생겨나고 기계의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계의 마음이 생겨나오.(有機械者 必有機心) 그런 마음이 갈수록 속이 있게 되면 곧 순진 결백한 본래 그대로의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정신이나 본성의 작용이 안정되지 않게 되고, 정신과 본성이 안정되지 않는 자에겐 도가 깰들지 않소. 내가 두레박을 모르는 게

아니오. 도에 대해 부끄러워 쓰지 않을 뿐이오. 자공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잡자고 있었다.

자연의 무위와 인위의 극치인 기계를 대비시킨 발상이 놀랍다. 밭에서 일하는 시골 노인과 이 재에 가장 밝은 공자의 제자 자공 사이의 대화가 자못 흥미롭다. 시골 노인은 자연을 벗 삼아 우물에 들어가 물을 길어 밭에 물을 주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농부이다.

이와 반대로 자공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만들어서 이용하면 힘 안들이고 밭에 물을 팔팔 넘치도록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두레박을 제작하여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권유한다.

그러자 노인은 두레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있으면 기계의 일이 반드시 생기고 기계의 일이 생기면 기계의 마음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또 기계의 마음은 자연이 준 순수한 본성을 잃게 하고 정신과 본성을 안정되지 않게 하여 ‘도’가 깰들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도’에 부끄럽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이다. 기계의 마음이 아니다. 하늘이 준 마음은 기계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하늘이 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인간에게 달렸다.

인류문명은 기술과 도구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21세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까지 나타났다.

정도전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의 문(天之文)이요, 산천초목은 땅의 문(地之文)이며, 시서예악은 사람의 문(人之文)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기(氣)로써 되고 땅의 문은 형(形)으로써 되지만 사람의 문은 도(道)로써 이룩되는 까닭에 문은 도를 신는 그릇(載道之器)이라고 하니 바로 인문(人文)을 말하는 것이다”(삼봉집)라고 했다. 혹자는 인문은 인간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지만 인문은 도를 신는 그릇이다. 시대가 발전하여 인문은 시서예악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그 도가 깰들 기술을 이용해서 두레박을 만들고 인공지능까지 개발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개발되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래서 기술의 부작용과 남용을 경계하고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통제가 필요하다. 기술을 추척해 가면 결국에는 윤리와 직면하게 된다. 기술도 도이다. 기술도 인문이다. 때문에 기술은 인문학과 함께 동거해야 한다.

기술은 인문학을 만나야 한다. 인문학은 하늘이 준 본래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이 기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덕과 지혜가 담겨있는 인류의 보고이다. 같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칼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메스도 될 수 있다.

장자에게 묻고 싶다. 그런데 밭에 물 주려고 뚫은 굴은 무엇으로 어떻게 뚫었으며 물을 퍼 날랐던 향아리는 무슨 기술로 만들었는지. 또 밭고랑과 밭이랑은 무슨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었는지.

글 권성재



영락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수도를 자신의 본거지인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급성을 지었다. 그는 베이징을 비롯한 도시들을 크게 성장시키고, 상업 활동은 물론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한 교역을 장려했다. 영락제는 수군을 창설하고 대규모 해상 원정단을 꾸려 대외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대외팽창형 황제였다. 이때 '정난의 변' 때 공을 세운 '징(鄭)이라는 성을 하사 받은 정화라는 환관을 크게 중용했다. 정화(鄭和)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울 때 윈난 성에서 포로가 되어 훗날 영락제가 되는 연왕 주체에 헌상되었다. 이때 환관이 되었다. 그의 선조는 색목인(원나라 때 몽골 정권에 귀복한 서방계 민

족의 총칭)인 이슬람 교도였다. 그는 영락제의 명령으로 1406년부터 1433년까지 총 일곱 차례의 대규모 해상 원정을 통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메카, 이탈리아 등 총 7차례에 걸쳐 37개국을 순항했다. 1405년 6월 1차 원정 당시 원정단의 규모는 길이가 약 137미터, 폭 약 56미터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포함된 함선 62척에 2만 7,800명의 선원이 탑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훗날 바스코 다 가마의 함대가 120톤급 3척, 170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었고, 콜럼버스의 함대가 250톤급 3척, 88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가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다. 그러나 1424년 영락제가 죽은 후

등극한 홍희제는 선대인 주원장이 그랬듯 해외 교역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보물배의 원정은 아무 소용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할 뿐이므로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화의 원정단을 해산시키고 원정 기록도 폐기시켰다. 배가 중국의 항구를 드나드는 일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홍희제가 죽고 즉위한 선덕제는 1433년 7차 해상 원정단을 꾸렸지만, 원정에 다녀온 정화가 죽으면서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막을 내렸다.

명나라는 왜 바다를 버렸을까? 바다를 버리고 육지만의 내향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 이후 역사의 흐름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영락제 사후 정화의 대원장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은 왜국 정책을 쓰지 않고 바다로 나갔을까?

16세기 영국의 윌터 롤리경(Sir Walter Raleigh)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한 후 영국은 해양대국이 되어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지배했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알프레스 머한(Alfred T. Mahan) 해군제독은 미국의 핵심적인 세계전략으로 “세계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세기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했다.

글 권성재

##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1년 3만원)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중회)
-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중회